

報 道 資 料

題 目 : 99年度 輸出入金融 擴充方案

主要內容

□ 政府는 99.3.9(화) 14:00 財政經濟部次官 주재로 輸出入 관련 關係기관 대책회의를 開催하였음

* 참석자 : 산자부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수출입은행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보험공사 사장, 산은 부총재, 신용보증기금 전무, 한은 부총재보

□ 등 회의에서는 최근의 輸出入動向을 점검하고 금년중에도 經常收支 黑字基調를 유지하고 輸出増大를 통한 景氣振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輸出入金融 需要의 증가에 대비하여 約 15억불의 公적재원을 추가로 지원
 - 수출입은행 증자자금(6억불 수준) : 수출금융에 지원
 - 추가 도입예정 차관자금중 8억불 및 98.1 도입한 IBRD 차관중 미지원분 約 1억불 : 수입금융에 지원

○ 貿易金融 및 貿易어음割引의 擴大

○ 信用保證 및 輸出保險支援의 擴充 : 5.2조원의 보증 공급

○ 輸出入銀行의 輸出金融支援 強化

□ 이 외에도 輸出入金融 支援機關들은 輸出企業의 金融隘路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세부내용 : 별첨

* Internet ID(www.mofe.go.kr) PC 통신 ID(go EPIC)

報道資料 生産課 : 金融政策局 金融政策課 TEL : 500-5341~3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

99年度 輸出入金融 擴充方案

1999.3.9(火)

財政經濟部

◇ 目 次 ◇

1. 98年 輸出入金融 支援現況

가. 支援背景

나. 輸出入金融 支援現況

다. 實績評價

2. 99年 輸出入金融 需給展望

가. 輸出入展望

나. 99年 輸出入金融 需要展望

다. 輸出入金融 需給展望

3. 99年 輸出入金融 擴大方案

가. 輸出入金融 財源의 擴充

나. 貿易金融 및 貿易어음割引 支援의 擴大

다. 輸出入金融에 대한 保證支援 擴大

라. 輸出入銀行의 輸出金融 支援機能 強化

1. 98年 輸出入金融 支援現況

가. 支援背景

□ IMF이전 80%수준 이상을 유지하던 수출입금융 비율이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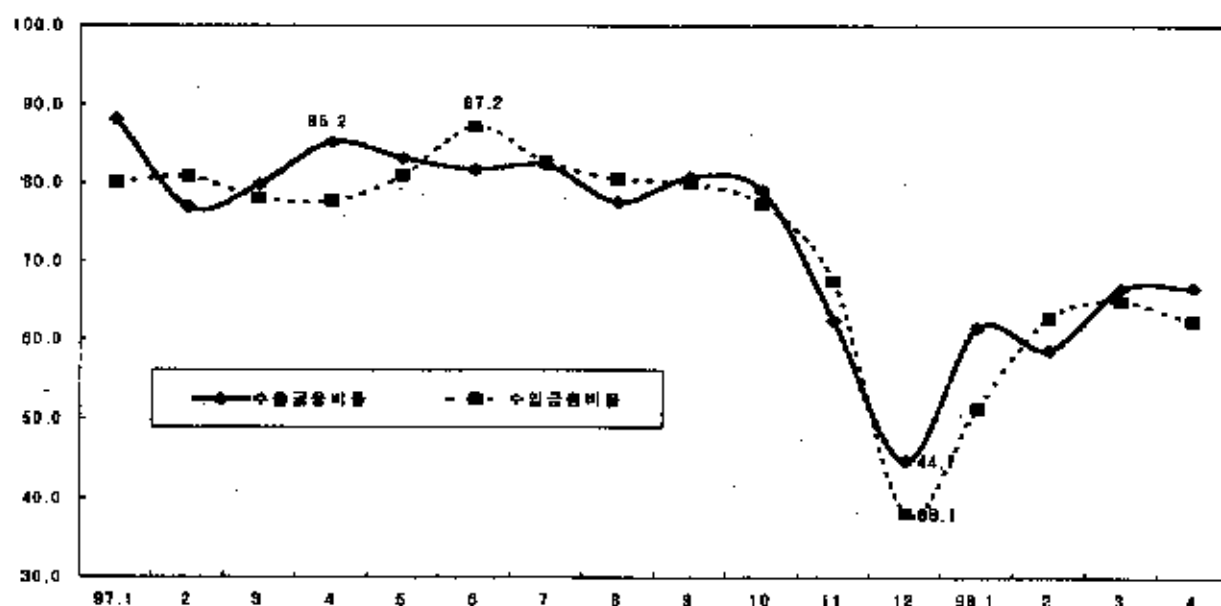
○ IMF이후 외화유동성 부족·부도증가에 따른 기업여신의 위험증가 등으로 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이 위축

- 98.1~3월중에는 수출입금융 비중이 60% 수준으로 하락

	97.1~3월	11월	12월	98.1~3월	4월
· 수출금융비율 ¹⁾	81.4	62.4	44.7	62.4	66.7
· 수입금융비율 ²⁾	79.6	67.5	38.1	59.9	62.3

1)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대출실적/수출액 2) LC개설실적/수입액

* 수출입금융비율 추이(%)



□ 이러한 수출입금융 공급부진으로 수출입규모도 1/4분기이후 감소함에 따라 98.4월 이후 「수출입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수출증가율 : (98.1/4) 8.4%, (2/4) △1.9%, (3/4) △10.8%, (4/4) △3.0%

【 輸出入金融 支援 體系 】

■ 생산자금지원(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

- 수출에 소요되는 생산 및 원자재구매자금 지원
- 무역금융 취급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지원
(지원실적의 약 40% 수준을 3% 자금으로 지원)

■ 수입금융지원(수입 L/C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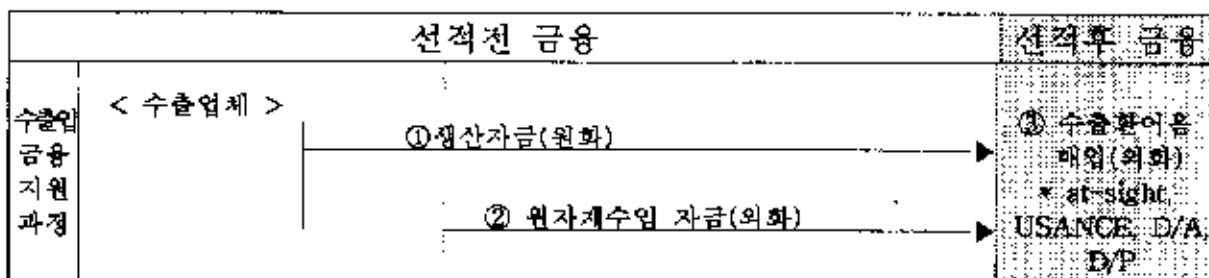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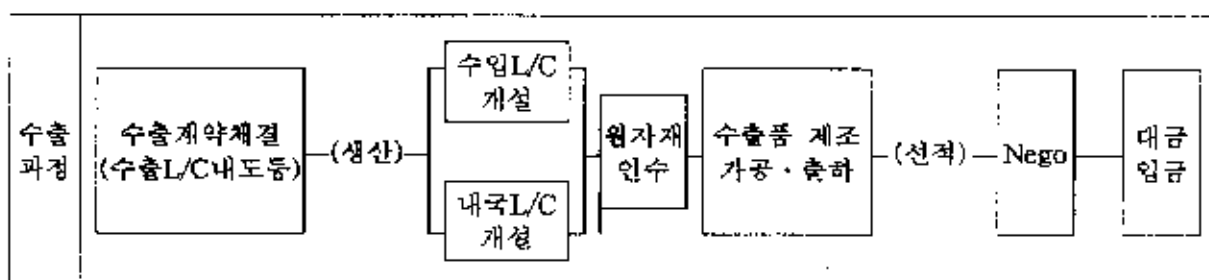
- 원자재 등을 수입시 은행에서 at-sight 또는 USANCE L/C를 개설하고 L/C기간 동안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보증

■ 수출금융지원(수출환어음의 매입)

- at-sight, USANCE, D/A, D/P방식의 수출환어음을 만기전에 은행이 매입하여 수출결제자금 지원

■ 보증지원

- 수출입금융지원시 수출입업자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보증지원



나. 輸出入金融 支援現況

- ◇ 부족한 외화를 보완하기 위해 53억불의 외화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 무역금융을 확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원화 수출입금융을 지원
 - 30대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어음할인을 활성화하여 원화금융 지원
- ◇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입금융 보증을 확충하여 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

□ 外貨資金支援의 擴大

- IBRD차관, 외환보유고, 일본 수출입은행 차입금, 수출입은행 자체조달 재원으로 53억불의 수출입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 公的資金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융지원에 활용
 - 은행자체 조달자금은 수출기업·대기업 지원에 활용

	지원계획	지원실적(98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융(수입 L/C개설) - IBRD자금 - 한은 초과외환보유고 - 輸銀 차입금 (일본 JEXIM자금) 	40억불 10 20 10	35.7 10.0 17.6 8.1	5대계열 제외 5대계열 제외 모든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수출환어음 매입) - 한은 초과외환보유고 - 輸銀 자체조달 	13억불 3 10	8.9억불 1.9 7.0	중소기업 5대계열 제외 (종합상사는 지원)
합 계	53	44.6	

- 53억불 이외에 산업은행이 美 EXIM자금 20억불을 차입하여 자본재수입재원으로 지원중(98말 현재 1억불 지원)

□ 貿易金融 및 貿易어음割引 支援의 活性化

- 한은 총액대출한도 확대(3.6조원 → 7.6조원)와 제도개선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충
 - 98.7월부터 무역금융 순증분 전액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무역금융 취급 인센티브 강화
 - * 무역금융에 대한 한은 지원비율 : 15%(97말) → 42.3%(98말)

※ 무역금융 주요 제도개선사항

- 용자한도 및 용자비율제한 폐지(98.5)
- 구매승인서를 무역금융 용자대상에 포함(98.7)
- 무역금융중 포괄금융방식의 지원대상을 수출실적 1천만불에서 2천만불이내인 기업으로 확대(98.8)
- 무역금융 용자대상 및 용자기간 확대(98.10)
 - 영화·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용자대상에 포함
 - 무역금융 용자기간 폐지(종전 90일)
- 유희설비 및 중고품수출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98.12)

- 대기업이 무역금융 대신 활용하는 무역어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어음 할인제도를 확대·개편(98.8.20)
 - 산업은행에 전담할인 재원 조성 : 1조원 → 2조원(98.10)
 -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시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지원
 - 무역어음의 할인방식 변경 : 건별할인방식→포괄할인방식

* 무역금융지원 및 무역어음할인 실적(억원)

	97말	98.6말	10말	11말	12말
무역금융	26,984	32,101	31,298	33,720	33,957
무역어음	8,441	2,062	12,013	14,174	13,671

□ 輸出入金融에 대한 保證支援 擴大

- 원칙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ADB·IBRD차관 20억불 및 정부예산 1.7조원 출연등으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통해 수출입금융에 보증지원
 - 원자재 수입 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98.1)
 - 보증한도 : 대기업 500억원, 중소기업 100억원
 - 수출업체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98.8)
 - 연간매출액의 1/3→1/2로 확대
 - 무역금융보증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30대계열기업이외의 대기업)으로 확대(98.8)
-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출연확대(98중 4,000억원)로 단기 수출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 L/C 수취기업의 무역금융수요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지원(98.7)
 - 대기업의 무역어음할인시 보증 지원(98.10)
 - 본지사간 D/A방식 수출환어음매입에 대한 보증지원(98.7)

* 98년중 수출입금융 보증지원(조원) : 신용보증기관 4.8, 보험공사 1.8

□ 輸出入銀行의 輸出入金融 支援機能 強化

-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의 개정(98.10)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단기 수출입금융지원기능 강화
 - 취급품목 및 취급기간제한(180일 이상)을 완화
 -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인금융 활성화

다. 實績評價

□ 수출입금융 지원의 확대등으로 98년중 400억불의 흑자목표 달성(수출 1,333억불, 수입 933억불)

- 수출입금융비율은 IMF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 추세

	97.9	97.12	98.1/4	2/4	3/4	4/4
수출금융비율(%)	80.8	44.7	62.4	66.2	70.5	63.9
수입금융비율(%)	79.9	38.1	59.9	61.7	63.6	60.7

□ 수출입결제 방식의 변화로 수출입금융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수출입금융비율이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한계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결제 증가(+10%수준)로 수출입금융 수요 감소
 - 외화유동성 부족 · 대외신인도 하락 · 신용경색등으로 수출입 금융 지원기능이 약화(공급측면)
 - 환위험 및 환가료 인상등에 따른 수지부담으로 기업 스스로 결제방식을 변경(수요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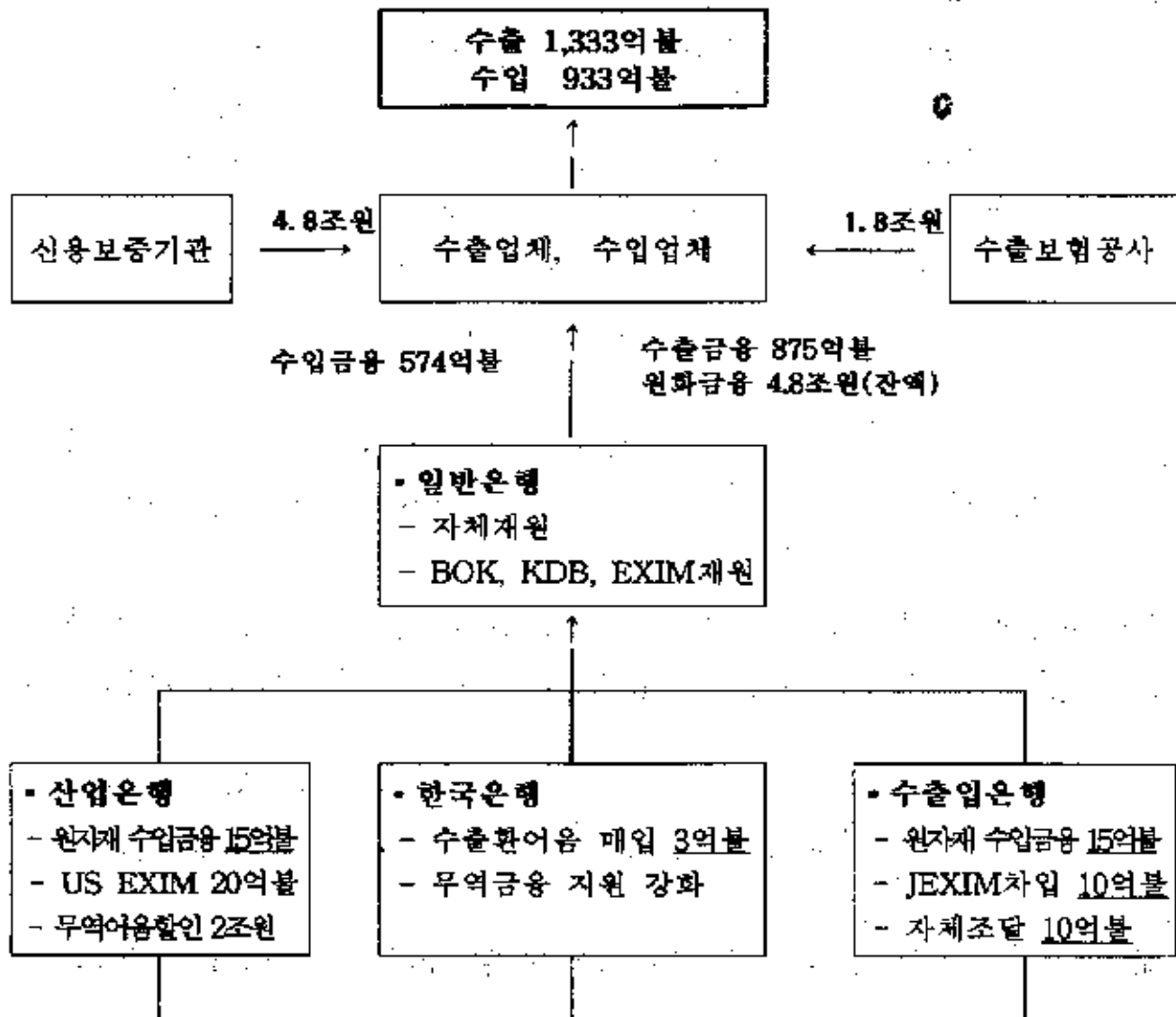
		97.1~11	97.12	98.1/4	2/4	3/4	10~11
수출	송금방식(%)	28.6	34.0	38.9	33.9	34.0	36.6
	환어음방식(%)	66.0	64.9	58.5	59.3	61.9	59.5
수입	송금방식(%)	10.0	11.8	14.2	15.3	16.6	19.1
	L/C방식(%)	76.3	72.6	65.4	63.3	61.6	59.0

□ 금년중에는 신용경색 완화로 공급측면의 애로는 해소될 전망이나 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환위험 증가와 높은 환가료로 송금방식 결제비율은 98년에 이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환가료 : Libor+1.00(97.10) → L+6.72(98.1) → L+5.99(98.4) → L+4.22(99.1)

→ 금년중 수출입금융비율은 98년보다 소폭 상승된 수준(65~70%수준) 전망

※ 98년중 수출입금융 지원체계 및 현황



※ 수출입 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

- 53억불 외화자금지원 프로그램 마련
- US EXIM 차입등 외화 credit-line 도입
-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 활성화 등 원화금융 지원 확충
-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등

2. 99年 輸出入金融 需給展望

가. 輸出入展望

□ 금년중 아시아 개도국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EU의 경제성장 둔화, 일본경제의 회복 지연, 선진국 보호주의 경향 증대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이에따라 99년 수출은 금년대비 0.6% 증가한 1,340억불 전망
(산자부)

· 세계경제성장률 : (98) 2% 수준 → (99) 2% 수준

· 세계교역신장률 : (98) 3~4% 수준 → (99) 4~5% 수준

□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 작년의急減에 대한 반사효과 및 환율절상 등으로 작년 대비 16.8% 증가한 1,090억불 전망(산자부)

□ 따라서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는 계속 이어지겠으나 전년 보다 축소된 250억불 내외 전망

* 99년 수출입 전망

	(억불, %)		
	97	98	99전망
수 출	1,362	1,333	1,340
(증감율)	5.0	△2.2	0.6
수 입	1,446	933	1,090
(증감율)	△3.8	△35.4	16.8
무역수지	△84	399	250

나. 99年 輸出入金融 需要展望

□ 금년 수출입금융수요(잔액기준)는 전년대비 62억불수준 증가 전망

■ 수출금융 수요 : +23억불 수준

- 수출금융비율은 7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금융기관의 외환사정 개선으로 수출금융지원이 장기화되어 지원자금의 연간 회전률은 하락 예상(98년 5.1 → 99년 4.8)

* 98년중에는 외환부족으로 지원자금이 97년보다 단기화

■ 수입금융 수요 : +39억불 수준

- 수입증가로 금융수요가 확대되고, 수입금융비율은 65%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지원자금의 연간 회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연간 3.5 수준)

* USANCE L/C개설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으로 지원기간이 98년에는 97년보다 장기화

* 99년 수출입 및 수출입금융수요 전망(억불)

	수출		수입		수출금융		수입금융	
		금융비율		금융비율	실적	잔액	실적	잔액
98년	1,333	65.6%	933	61.5%	875	172	574	164
99년	1,340	70%	1,090	65%	938	195	709	203
증감	+7	+4.4%p	+157	+4.5%p	+63	+23	+135	+39

다. 輸出入金融 需給展望

□ 금년중 수출입금융 재원은 15억불 수준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해외차입 및 외환수급 여건등을 감안할 때 은행 자체자금으로 20억불 내외의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외국환은행은 외환사정 개선을 기초로 연간 20억불(잔액 기준) 내외의 수출입금융 추가 지원이 가능할 전망

※ 99.1월 은행의 기간물 해외차입금 roll-over비율이 IMF 이후 처음으로 100%를 초과(99.1월 102.5%)

■ 98년중 지원 계획한 외화자금중 미지원분 27억불의 추가 지원 가능

- 53억불중 8억불 미지원(98말 현재)

- US EXIM 자금(20억불)중 19억불 미지원(98말 현재)

▶ 자금부족 = 추가수요(62억불) - 추가공급(20+27억불) = 15억불

□ 전체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수출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계속 강화될 필요

⇒ 수출입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통한 추가 지원과 수출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기능 활성화가 필요

3. 99年 輸出入金融 擴大方案

◇ 기 본 방 향 ◇

- ◇ 금년에는 수출입증가와 수출입금융 비율확대로 작년에 비해 수출입금융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수출입금융이 정상화되고는 있으나 은행의 외환사정이 아직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지원 방안 필요
- ◇ 98년 마련한 외화지원 프로그램(53억불)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재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수출입금융을 활성화
 - 연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출입금융 재원은 공적 자금지원, 국책은행의 역할강화 등을 통해 보완
 - 공적자금은 수입금융에 지원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수출금융은 은행 자체재원을 활용
 - 무역금융, 무역어음할인등 원화금융지원도 계속 확충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도모
 - 신용보증기관,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기능 확대로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 자금조달을 지원

가. 輸出入金融 財源의 擴充

□ 부족재원 15억불의 조달방안

■ 수출금융지원 : 6억불 추가 지원

- 한국은행의 대수출입은행 증자자금 7,000억원(6억불)을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하여 전액 수출환어음 대입 자금으로 사용

■ 수입금융지원 : 9억불 추가 지원

- 98.1 도입한 IBRD자금(20억불)*중 미지원분 0.7억불을 산은을 통해 수입금융으로 지원(현재 산은이 여유자금 형태로 보유중) * 사용내역 : 수입금융 10, 주택신보출연 2, 실업대책 7.3
- 추가 도입 추진중인 차관등 공적자금으로 8억불을 수입금융으로 지원
 - 산은 또는 수은을 통해 시설재·원자재 수입 지원

⇒

수출금융 : 23억불수준 추가	수입금융 : 39억불수준 추가
· 수은증자자금 6억불	· 98계획 미지원분 27억불
	· IBRD차관 미지원분 1억불
	· 차관등 공적자금 추가 8억불
· 은행자체자금 17억불	· 은행자체 자금 3억불

- 수출입금융 수요를 계속 파악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외자조달을 확대하여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

*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KDB, EXIM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전망

나. 貿易金融 및 貿易어음割引 支援 擴大

☐ 한국은행 무역금융 지원의 지속적 확충

- 무역금융은 99.2말 현재 3.9조원으로 그 동안의 제도개선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
- 현재 활용가능한 총액대출한도 미지원분(3,700억원)등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이 계속 확대되도록 유도

* 현재 무역금융 순증분에 대해서 전액 총액한도대출로 지원중

☐ 산업은행 무역어음할인 지원 확대

- 무역어음할인 재원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 무역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업체당·계열당* 한도를 폐지하고 각 업체의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할인한도 설정

* 업체당 1,000억원, 동일 계열당 3,000억원

☐ 수출입은행의 원화금융 지원 확대

- 원화채권을 발행하여 장단기 원화수출금융의 재원으로 활용
 - 발행규모 : 5,000억원
 - 발행시기 : 시장상황에 따라 분할 발행

다. 輸出入金融에 대한 保證支援 擴大

□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및 L/C개설에 대한 보증 강화

- 금년도 정부출연(1.2조원, 1월중 완료) 및 98.12중 출연한 IBRD자금 10억불을 통해 보증 활성화

- 99중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계획 : 3조원

○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

-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보증한도를 최근(또는 추정)매출액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업체의 수출실적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보증공급

○ 수출관련기업과의 연계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추천업체 및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업체(산자부 선정) 등을 우대보증지원 대상기업으로 추가

□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확대

○ 금년 3,0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공급능력 확충

- 이를 통해 금년중 무역금융, 무역어음 및 수출환어음매입에 대해 2.2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

○ 보험금 지급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보험공사 보증서의 담보 적격성 강화 추진

라. 輸出入銀行의 輸出金融 支援機能 強化

□ 中小規模 資本財 수출시 金融支援 對象 擴大

- 6월미만의 단기대출이 가능한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의 금융 지원 대상에 5대계열의 종합무역상사도 포함

* 5대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50% 수준 차지

- 업무방법서 개정 : 1/4분기중 조치

□ Co-financing을 통한 資本財 輸出促進 誘導

- 현재 ADB의 경우 Program Loan 증가로 대출재원이 고갈되어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타 기관과의 Partnership 제고 필요

- 아시아지역에 대한 자본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ADB와 Co-financing 협조체제를 구축

- 아시아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재 수출에 자금지원

- 추진일정

- 수은과 ADB간 협조융자 기본협정서 체결(1/4분기)

- 협조융자대상 프로젝트 분야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희망업체 발굴 및 홍보(2/4분기)

□ 知識産業의 輸出支援 基盤 마련

- 현재 수은의 자금지원 대상이 기술은 산업시설 및 해외건설 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제한
 - 소프트웨어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에 대한 지원이 곤란
- 자금지원 대상 기술에 소프트웨어 및 기술진흥을 위해 각종 특별법*에서 정한 제반기술(영상물등)을 포함
 -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등
- 업무방법서 개정 : 1/4분기중 조치

□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制度整備

- 수출거래의 사업성 및 차주회사 신용평가 중심의 심사관행 정착을 통해 신용대출을 확대
 - 전담부서 신설 및 여신감리시스템 도입
 - 필요시 신용평가 전문인력 외부충원(outsourcing)
 - 기업의 현금흐름 및 미래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분석 모델 개발 등
- 1/4분기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시행